

칼럼

정문재 뉴시스 부국장겸 미래전략부장



일본의 분할 점령

18세기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독일인으로 보기 힘들다. 오히려 러시아인으로 봐야 한다.

칸트는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다. 칼리닌그라드는 지금은 러시아 땅이지만 옛날에는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였다.

프로이센은 18세기 말에 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프로이센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오페라 나치세 강(江) 동쪽 지역을 폴란드에 넘기는 한편 칼리닌그라드도 소련에 양도했다.

소련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독일 항복 후 소련의 일본 공격에 합의했다. 루스벨트는 미군의 회생을 최소화하면서 일본의 조기 항복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과 영국은 소련과 독일이 서로 싸우다 쓰러지기를 바란다"고 의심했다. 기록들은 무너뜨리기 힘들다.

소련은 독일 등 점령 지역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미국과 영국이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런 요구를 거부할 의지도, 힘도 없었다.

독일과 비교하면 일본은 운이 좋았다. 일본도 점령지의 대부분을 연합국에 내줬지만 본토는 지켰다.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스탈린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독일 항복 후 소련의 일본 공격에 합의했다. 루스벨트는 미군의 회생을 최소화하면서 일본의 조기 항복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갑작스런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당초의 계산을 어그러뜨렸다. 미국은 1945년 7월16일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원폭 실험 성공은 소련의 잠진 가치를 떨어뜨렸다.

어뜨렸다. 루스벨트의 후임자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단독으로 전쟁을 끝내기 전에 점령지를 나눠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소련은 달랐다.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끝내기 전에 점령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했다. 발상에 순가락을 엮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미국이 8월8일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자 소련은 이를 후 일본에 선전을 포고했다.

소련군은 만주,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 소련은 미국에 훗카이도 분할 점령, 미·소 양국의 연합군 최고 사령부 공동 운영 등을 요구했다. 트루먼은 소련의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은 차선책으로 경성(京城)을 관할 구역에 넣는 방안을 수립했다. 미국은 차선책으로 경성(京城)을 관할 구역에 넣는 방안을 수립했다.

했다. 미국은 북위 38도선을 소련과의 점령 경계선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련도 이를 수용했다. 일본 대신 한국이 연합군의 분할 점령 대상으로 바뀌었다.

일본은 오히려 본토를 최대한 지켜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1946년 "일본의 주권은 혼슈 등 4개 주요 섬과 부속 도서로 제한된다. 독도와 쿠릴열도는 제외한다"고 선언했다.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이를 공식 인정했다. 요시다 총리는 1952년 8월1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영토는 4개 주요 섬과 부속 도서로 한정된다. 다른 영토는 포기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은 영구 분단으로 이어졌다. 반면 일본은 본토를 지키면서 한국전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여유를 되찾자 영토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까지 드러냈다.

평균적 일본인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신사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르다. 틈만 나면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린다. 국가는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국가에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동맹도 완벽한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 그저 현재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을 때 유지될 수 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라도 와해된다. 상대를 압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끝까지 아파게 만들 정도의 힘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이유다.

社說

경찰 현장인력 중심 배치해야

17개 지방경찰청 중 9곳이 지난해보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찰 현원은 지난해 총 4만6472명이었으나 올해(7월 기준)는 4만6241명으로 231명 감소했다.

지방청 9곳에서 642명이 감소하고 나머지 8곳에서 411명이 증가한 결과다. 같은 기간 경찰 총현원은 11만6842명에서 11만670명으로 72명 감소했다.

지방청별로 지역경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청(391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청(67명), 인천청(66명), 경북청(31명), 광주청(28명), 울산청(25명), 대구청(19명), 대전청(8명), 경기남부청(7명) 순이었다.

이 경우 모두 지역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증가했다. 인천의 경우 인구는 4700명 늘어났지만 지역경찰은 68명 감소해 1인당 담당 인구가 전년대비 40명 이상 증가했다.

서울도 지역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지난해 971명이었으나 올해는 37명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섰다. 나머지의 8개 지방청의 경우 지역경찰 수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원된 곳은 부산(117명)이었고 다음은 충남(83명), 전북(62명), 경기북부(61명), 제주(34명), 경남·전남(22명), 충북(10명) 순이었다.

경찰은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장 민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인력배치가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고 이것이 곧 지역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Table with 2 columns: Character (鑑, 貌, 辨, 色) and Meaning (거울, 모양, 분별할, 빛). Includes a definition: '鑑貌辨色: 모양과 거동으로 그 마음속을 분별할 수 있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금물

어느덧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등 어디에서든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더군다나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헤마다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평균 428명이 숨지거나 다친다고 한다. 지난 2015년 교통안

전공단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90% 이상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SNS, 인터넷 검색 등 한손은 운전대, 한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불안한 곡예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 것이다. 허나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보다 덜 위험하다고 착각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 행위는 민취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다. 그만큼 운전 중 발발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국내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가 정지중인 경우나 긴급자동차 운전 시, 범죄나 피해 신고를 요청할 경우 등이 있다. 벌점이나 몇 만원의 범칙금으로는 경각심을 주기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운전 중 업무상의 이유로 통화

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블루투스나 핸즈프리 등 편의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네비 등 조작이 필요한 경우는 동승자의 도움을 받거나 차량을 정차한 후에 조작할 수 있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지이다.

"잠깐인데 뭐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자.

박주혁 / 여수소방서 소러나전센터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advertisement: 매일 아침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청렴에 대한 굳은 의지와 약속,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희망입니다. 광주시교육청 logo and text.